

케이엘제삼차(유)

정기평가
평가일: 2017.11.16

유동화기업어음 신용등급

구분	발행금액(한도)	발행(예정)일	만기(예정)일	직전등급	평가등급
제1회차 ABCP	300억원	2016.05.20	2016.08.20	A1(sf)	상환
제2회차 ABCP	300억원	2016.08.20	2016.11.20	A1(sf)	상환
제3회차 ABCP	300억원	2016.11.20	2017.02.20	A1(sf)	상환
제4회차 ABCP	300억원	2017.02.20	2017.05.20	A1(sf)	상환
제5회차 ABCP	300억원	2017.05.20	2017.08.20	A1(sf)	상환
제6회차 ABCP	300억원	2017.08.20	2017.11.20	A1(sf)	A1(sf)
제7회차 ABCP	300억원	2017.11.20	2018.02.20	A1(sf)	A1(sf)
제8회차 ABCP	300억원	2018.02.20	2018.05.20	A1(sf)	A1(sf)
제9회차 ABCP	300억원	2018.05.20	2018.08.20	A1(sf)	A1(sf)
제10회차 ABCP	300억원	2018.08.20	2018.11.20	A1(sf)	A1(sf)
제11회차 ABCP	300억원	2018.11.20	2019.02.20	A1(sf)	A1(sf)
제12회차 ABCP	300억원	2019.02.20	2019.05.20	A1(sf)	A1(sf)

Analyst

신윤섭 책임연구원 yoosub.shin@scri.co.kr	02) 6966-2459	박민식 실장 mspark@scri.co.kr	02) 6966-2461
-------------------------------------	---------------	-----------------------------	---------------

거래참가자

거래유형	대출채권 유동화
업무수탁자	(주)국민은행
자산관리자	(주)국민은행
ABCP 매입보장 겸 신용공여은행	(주)국민은행
법률자문기관	김·장 법률사무소
주관회사	(주)국민은행

유동화자산

유동화자산	대출채권 및 부수 권리
차주	롯데알미늄(주)
대출채권 원금	300억원
대출실행일	2016.05.20
대출만기일	2019.05.20
이자지급	매 3개월 초일 선급
원금상환	만기일시상환(조기상환 가능)

주)정보제공자: 업무수탁자

평가의견

서울신용평가(주)는 케이엘제삼차(유)(이하 'SPC')가 발행하였거나 발행할 제6회차 내지 제12회차 유동화 기업어음(이하 'ABCP')의 신용등급을 A1(sf)로 유지하며, 주요 평가요인은 다음과 같다.

- ABCP에 대한 (주)국민은행의 매입보장 및 신용공여약정
- (주)국민은행이 제공하는 유동성공여약정
- (주)국민은행과 체결한 이자율 스왑계약

유동화 개요

본건 유동화는 2016.5.19일 롯데알미늄(이하 ‘차주’)와 SPC 간에 체결된 "대출약정서"에 의거하여 2016.5.20일 SPC가 ABCP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300억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향후 차주에 대한 대출채권 등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 또는 유동화기간 중 차환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을 통해 본 건 ABCP를 상환하는 구조이다.

유동화 자산

본건의 유동화 자산은 대출약정서에 의해 차주에게 실행되는 원금 300억원의 대출채권으로 2019.5.20일에 만기 일시 상환방식으로 상환되며, 차주는 대출실행일 이후 매 3개월 초일에 고정금리로 계산된 이자를 선급한다. 한편, 조기상환은 차주가 10영업일 이전에 SPC에게 서면 통지와 동의를 구하고, 기한전 상환에 따라 SPC가 부담하게 되는 일체의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한편, SPC의 업무수탁자인 (주)국민은행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유동화 자산에 대한 이자는 정상적으로 수취되고 있으며, 조기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평가일 현재 제6회차 ABCP(발행금액 300억원)가 발행되어 있다.

주요 위험요인과 통제방안

본 유동화와 관련하여 검토된 주요 위험요인은 유동화 자산의 신용위험, ABCP의 차환발행위험, SPC의 유동성위험, 이자율 변동위험 등이다.

본건 유동화자산의 신용위험은 차주가 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적시에 상환하지 못해 ABCP 적시상환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다. 또한, SPC는 유동화자산의 만기일까지 ABCP를 차환발행 할 예정으로, 차환발행하는 ABCP의 시장 미매각 등 차환발행위험이 존재한다.

이는 (주)국민은행의 기업어음증권매입보장 및 신용공여약정으로 통제된다. 동 약정에 따르면 (주)국민은행은 300억원을 한도로 ABCP의 각 발행일에 매각되지 않은 잔여 ABCP를 약정된 할인율에 매입할 것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주)국민은행은 업무위탁계약 상 ABCP 발행중단사유 등의 발생으로 기 발행 ABCP의 상환 재원 등이 부족한 경우 SPC에게 300억원 한도의 신용공여를 실행할 것을 약정하고 있다.

SPC의 유동성위험은 대출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유동화 관련 제반비용 등이 부족한 경우로, 동 위험은 (주)국민은행이 제공하는 1.6억원 규모의 유동성공여약정으로 통제된다.

본건 유동화자산에 대한 이자는 매 이자계산기간 개시일에 고정금리로 수령하는 반면, ABCP의 할인율은 CD금리에 연동되어 재산정됨에 따라 이자율 변동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자율 변동위험은 SPC가 (주)국민은행과 체결한 이자율스왑 계약으로 통제된다.

상기 위험요소들과 이에 대한 통제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은 (주)국민은행의 신용도와 연계되어 있으며, (주)국민은행의 신용도는 본 ABCP의 등급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본 평가는 서울신용평가(주)의 SF 신용평가 일반론과 산업별 평가방법론(은행)을 적용했습니다. 신용평가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신용평가(주) 홈페이지 www.scri.co.kr의 "Research/평가방법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사가 본 건 신용평가등급 산정에 이용한 중요자료는 유동화회사 관련서류, 유동화자산 자료, 유동화관련 계약서, 기타 주관회사에서 제공한 자료 등입니다.

당사는 본 건 신용평가등급 산정 시 거래참가자 주식에 표기된 정보제공자로부터 자료를 수령하여 신용평가에 반영하였습니다.

[단기신용등급의 정의]

신용등급	정의
A1(sf)	적기 상환능력이 최상이며, 상환능력의 안정성 또한 최상이어서 투자위험도가 극히 낮음.
A2(sf)	적기 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그 안정성은 A1(sf)등급에 비하여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A3(sf)	적기 상환능력은 양호하나 장래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이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sf)	적기 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그 안정성에 다소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C(sf)	적기 상환능력이 의문시되어 투기적 요소가 강함.
D(sf)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

주1: 상기 등급 중 A2(sf)부터 B(sf)까지는 당해 등급 내에서의 상대적 우월 정도에 따라 +, - 기호를 부기할 수 있음.

주2: 상기 등급 중 A1(sf)등급에서 A3(sf)등급까지는 적기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등급으로, B(sf), C(sf) 등급은 환경변화에 따라 적기 상환능력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투기등급으로 분류됨.

- 본 신용평가의 평가개시일은 2017년 11월 6일이며, 평가완료일은 2017년 11월 16일입니다.
- 최근 2년간 평가요청인과 체결한 다른 신용평가 건수 및 수수료총액은 각각 1건, 7.5백만원입니다. 당사는 평가완료일 현재 평가요청인의 다른 신용평가용역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평가요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최근 2년간 평가요청인과 체결한 비평가용역계약 체결 건수 및 수수료 총액은 0건, 0백만원이며, 당사는 평가완료일 현재 평가요청인의 다른 비평가용역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1.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투자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현재시점에서의 서울신용평가(주)의 의견입니다. 신용등급은 신용위험을 제외한 다른 위험(시장가치 변동위험, 유동성위험, 운영위험 등의 여타 위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특히, 구조화금융상품의 신용등급은 법령, 조세제도의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등급은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관한 서술이 아니며, 당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신용위험에 대하여 예측한 의견으로서, 이러한 예측정보는 실제 결과치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환경변화 및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신용등급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문을 의미하지 않으며, 특정 증권에 투자의사결정(매매, 보유 등)을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등급이나 평가의견 등은 정보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으며, 정보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정보이용자들은 유가증권, 발행자, 보증기관 등 투자대상의 위험에 대해 자체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3. 본 평가서 및 의견서 등 보고서는 평가대상자 또는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 및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당사는 평가대상자 또는 의뢰인으로부터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지 않았으며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평가대상자 또는 의뢰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용평가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평가의 특성 및 자료원의 제한성, 분석자, 분석도구 또는 기타 요인에 의한 오류의 발생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 결정시에 활용되었거나 평가보고서에 주요 판단근거로서 제시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그 정확성, 적합성 또는 충분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제공된 정보의 오류, 사기 및 허위, 미제공 등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당해 신용등급 및 평가의견을 포함한 보고서에 반영되었거나 포함되어 있는 정보 및 기재내용의 정확성, 완전성 및 적합성을 당사가 보증하거나 확약하지 않습니다. 평가의견을 포함한 신용평가서의 모든 정보들은 신용등급 부여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이며, 평가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가 기재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당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사항을 제외하고 신용등급 및 평가의견을 포함한 신용평가서상의 정보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5.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서울신용평가(주)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사전서면동의 없이는 무단 전재되거나 복사, 인용, 재판매 또는 유포될 수 없습니다.

케이엘제삼차(유)

정기평가
평가일: 2017.11.16

유동화익스포저 개요

구분	공여기관	직전등급	평가등급	한도금액	약정체결일	약정만료일
ABCP 매입보장 및 신용공여	(주)국민은행	A+(sf)	A+(sf)	300억원	2016.05.19	2019.05.20

Analyst

신윤섭 책임연구원 yoosub.shin@scri.co.kr	02) 6966-2459	박민식 실장 mspark@scri.co.kr	02) 6966-2461
-------------------------------------	---------------	-----------------------------	---------------

거래참가자

거래유형	대출채권 유동화
업무수탁자	(주)국민은행
자산관리자	(주)국민은행
ABCP 매입보장 겸 신용공여은행	(주)국민은행
법률자문기관	김·장 법률사무소
주관회사	(주)국민은행

유동화자산

유동화자산	대출채권 및 부수 권리
차주	롯데알미늄(주)
대출채권 원금	300억원
대출실행일	2016.05.20
대출만기일	2019.05.20
이자지급	매 3개월 초일 선급
원금상환	만기일시상환(조기상환 가능)

주)정보제공자: 업무수탁자

평가의견

서울신용평가(주)는 케이엘제삼차(유)(이하 'SPC')에 대한 (주)국민은행의 유동화익스포저 신용등급을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감안하여 A+(sf)로 유지한다.

- 유동화자산의 차주인 롯데알미늄(주)의 신용도
- (주)국민은행과 체결한 이자율 스왑계약

유동화 개요

본건 유동화는 2016.5.19일 롯데알미늄(주)(이하 '차주')와 SPC 간에 체결된 "대출약정서"에 의거하여 2016.5.20일 SPC가 ABCP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300억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향후 차주에 대한 대출채권 등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 또는 유동화기간 중 차환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을 통해 본 건 ABCP를 상환하는 구조이다.

유동화자산

본건의 유동화 자산은 대출약정서에 의해 차주에게 실행되는 원금 300억원의 대출채권으로 2019.5.20일에 만기 일시 상환방식으로 상환되며, 차주는 대출실행일 이후 매 3개월 초일에 고정금리로 계산된 이자를 선급한다. 한편, 조기상환은 차주가 10영업일 이전에 SPC에게 서면 통지와 동의를 구하고, 기한전 상환에 따라 SPC가 부담하게 되는 일체의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한편, SPC의 업무수탁자인 (주)국민은행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유동화 자산에 대한 이자는 정상적으로 수취되고 있으며, 조기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평가일 현재 제6회차 ABCP(발행금액 300억원)가 발행되어 있다.

유동화익스포저 개요

SPC는 ABCP의 상환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국민은행과 300억원 한도의 기업어음증권매입보장 및 신용공여약정을 체결하였다. 동 약정에 따르면 (주)국민은행은 300억원을 한도로 ABCP의 각 발행일에 매각되지 않은 잔여 ABCP를 약정된 할인율에 매입할 것을 보장하고 있으며, 업무위탁계약 상 ABCP 발행중단사유 등의 발생으로 기 발행 ABCP의 상환 자원 등이 부족한 경우 SPC에게 300억원 한도의 신용공여를 실행할 것을 약정하고 있다. 또한, SPC는 대출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에 따른 유동성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주)국민은행과 1.6억원 규모의 유동성공여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17년 10월 31일 현재 실행되어 있는 유동성공여 잔액은 약 51백만원이다.

주요 위험요인과 통제방안

본건 유동화익스포저와 관련하여 검토된 주요 위험요인은 유동화자산의 신용위험, 이자율변동위험 등이다.

유동화자산의 신용위험은 차주가 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적시에 상환하지 못해 ABCP 적시상환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으로 차주의 신용도에 연동되며, 차주인 롯데알미늄(주)의 신용도는 본건 유동화익스포저등급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본건 유동화자산에 대한 이자는 매 이자계산기간 개시일에 고정금리로 수령하는 반면, ABCP의 할인율은 CD금리에 연동되어 재산정됨에 따라 이자율 변동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자율 변동위험은 SPC가 (주)국민은행과 체결한 이자율스왑 계약으로 통제된다.

본 평가는 서울신용평가㈜의 유동화익스포저 평가방법론과 SF 신용평가 일반론, 산업별 평가방법론(은행 및 제조업일반)을 적용하였습니다. 신용평가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신용평가㈜의 홈페이지 www.scri.co.kr의 "Research/평가방법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사가 본 건 신용평가등급 산정에 이용한 중요자료는 유동화회사 관련서류, 유동화자산 자료, 유동화관련 계약서, 기타 주관회사에서 제공한 자료 등입니다.

당사는 본 건 신용평가등급 산정 시 거래참가자 주식에 표기된 정보제공자로부터 자료를 수령하여 신용평가에 반영하였습니다.

[장기신용등급의 정의]

신용등급	정의
AAA(sf)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상임.
AA(sf)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 등급에 비하여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A(sf)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우수하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BB(sf)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원리금 상환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BB(sf)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B(sf)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임.
CCC(sf)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이 커서 매우 투기적임.
CC(sf)	상위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C(sf)	채무불이행 위험성이 극히 높음.
D(sf)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임.

- 주1: 상기 등급 중 AA(sf)부터 CCC(sf)까지는 당해 등급 내에서의 상대적 우월 정도에 따라 +, - 기호를 부기할 수 있음.
- 주2: 상기 등급 중 AAA(sf)등급에서 BBB(sf)등급까지는 적기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등급으로, B(sf)에서 C(sf)등급은 환경변화에 따라 적기 상환능력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투기등급으로 분류됨.
- 주3: 자산유동화증권(ABB, ABCP, ABSTB 등)과 유동화익스포저의 경우 신용등급 기호에 (sf)를 부기함.

- 본 신용평가의 평가개시일은 2017년 11월 6일이고, 평가완료일은 2017년 11월 16일입니다.
- 최근 2년간 평가요청인과 체결한 다른 신용평가 건수 및 수수료총액은 각각 1건, 7.5백만원입니다. 당사는 평가완료일 현재 평가요청인의 다른 신용평가용역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평가요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최근 2년간 평가요청인과 체결한 비평가용역계약 체결 건수 및 수수료 총액은 0건, 0백만원이며, 당사는 평가완료일 현재 평가요청인의 다른 비평가용역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1.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투자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현재시점에서의 서울신용평가㈜의 의견입니다. 신용등급은 신용위험을 제외한 다른 위험(시장가치 변동위험, 유동성위험, 운영위험 등의 여타 위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특히, 구조화금융상품의 신용등급은 법령, 조세제도의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등급은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관한 서술이 아니며, 당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신용위험에 대하여 예측한 의견으로서, 이러한 예측정보는 실제 결과치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환경변화 및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신용등급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문을 의미하지 않으며, 특정 증권의 투자의사결정(매매, 보유 등)을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등급이나 평가의견 등은 정보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으며, 정보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정보이용자들은 유가증권, 발행자, 보증기관 등 투자대상의 위험에 대해 자체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3. 본 평가서 및 의견서 등 보고서는 평가대상자 또는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 및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당사는 평가대상자 또는 의뢰인으로부터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지 않았으며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평가대상자 또는 의뢰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용평가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평가의 특성 및 자료원의 제한성, 분석자, 분석도구 또는 기타 요인에 의한 오류의 발생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 결정시에 활용되었거나 평가보고서에 주요 판단근거로서 제시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그 정확성, 적합성 또는 충분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제공된 정보의 오류, 사기 및 허위, 미제공 등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당해 신용등급 및 평가의견을 포함한 보고서에 반영되었거나 포함되어 있는 정보 및 기재내용의 정확성, 완전성 및 적합성을 당사가 보증하거나 확약하지 않습니다. 평가의견을 포함한 신용평가서의 모든 정보들은 신용등급 부여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이며, 평가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가 기재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당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사항을 제외하고 신용등급 및 평가의견을 포함한 신용평가서상의 정보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5.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서울신용평가㈜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사전서면동의 없이는 무단 전재되거나 복사, 인용, 재판매 또는 유포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가 부여한 유동화익스포저 신용등급은 감동규제비율 산정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차주 분석: 롯데알미늄(주)

(단위: 억원)

	2012.12	2013.12	2014.12	2015.12	2016.12
매출액	10,892	10,451	10,454	10,451	10,360
영업이익	328	195	209	237	241
EBITDA	525	404	437	482	505
총자산	16,548	16,970	17,104	18,894	17,122
순차입금	3,176	3,090	3,444	3,417	3,789
EBITDA/매출액(%)	4.82	3.87	4.18	4.61	4.87
부채비율(%)	84.05	77.10	82.07	73.35	81.56
NCF/경상투자(배)	2.28	0.75	0.33	1.80	0.21
차입금커버리지(배)	6.05	7.65	7.88	7.10	7.50
유동성커버리지(%)	30.03	28.73	27.55	25.56	25.00

주1: K-IFRS 연결기준

주2: 차입금커버리지=순차입금/EBITDA, 유동성커버리지=(현금및금융상품+EBITDA)/단기성차입금*100

롯데알미늄(주)(이하 '동사')는 업계 내 수위의 시장지위와 다변화된 제품포트폴리오, 그룹 Captive 수요를 기반으로 높은 사업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동사는 알미늄 소재 가공 및 제조를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과점적 시장 내 40% 점유율을 차지하며 수위의 시장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다변화된 제품포트폴리오와 매출의 50%내외의 그룹 Captive 수요를 바탕으로 매우 안정적인 매출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수익성은 높지 않지만 안정적인 흐름을 견지하고 있다. 제품차별화가 쉽지 않고 낮은 진입장벽에 따른 높은 경쟁강도로 수익성은 높지 않은 수준이다. 하지만 동사는 양호한 사업안정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창출력을 유지하고 있다.

지표상 차입금 부담이 높은 편이다. 동사의 순차입금 규모는 EBITDA의 7배를 상회하고 있어 지표상 차입부담이 존재하며, 이는 그룹 계열사 지분 확보에 기인한다. 하지만, 동사는 합리적인 투자정책을 통해 차입금 규모를 일정수준 유지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현금창출력을 감안하면 재무부담 확대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룹의 지원가능성이 동사의 신용도를 보완하고 있다. 동사는 그룹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지배구조상 중요성이 인정되고, 그룹 사업과의 긴밀한 사업연계성을 보이고 있어 그룹으로부터의 직간접적인 지원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다.

한편, 동사는 차입금만기구조가 단기화되어 있고, 보유 현금성자산의 규모도 크지 않은 수준이나 롯데 그룹소속으로서의 높은 대외신인도와 보유 지분을 통한 자금조달여력 등을 감안하면 단기자금소요에 무난한 대응이 예상된다.